# 소액·단기일수록 예금금리 우대

## 시중은행, 증권사 CMA 대응 MMDA에 주력

〈종합자산관리계좌〉 〈수시입출금식예금〉

이번 달 콜금리 인상에 따라 대부분 시중은행이 예금금리를 인상하면서 예금액이 적고 만기가 짧은 상품을 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상 1년 만기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중심으로 금리를 인상해 온 것과 달리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자금 이탈이 계속되자 CMA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운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금리를 더 많이 올리고 있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개인과 법인 MMDA의 금리를 각각 0.2%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개인 1억원이상 MMDA의 경우 3.4%에서 3.6%로, 기업 10억원이상 MMDA는 3.3%에서 3.5%로 인상됐다.

반면 1년이상 2년미만의 새희망적금·웰빙라이프적금·허니문플랜적금은 4.4%로 0.1%포인트, 7년이상 30년이내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4.9%로 0.1%포인트 올리는데 그쳤다.

기업은행도 13일부터 개인과 법인 MMDA의 금리를 0.2~0.25%포인트 인상한다. 개인 MMDA의 경우 예금액 500만원 이상은 0.25%포인트, 1억원 이상은 0.2%포인트 올린다.

'실세금리 정기예금'는 6개월 만기가 0.2%포인트, 1년 만기가 0.1%포인트 인상된다. 만기가 없는 MMDA에 대해서는 예금액이 적을수록, 정기예금은 만기가 짧을수록 높은 우대금리를 적용한 셈이다.

농협도 개인 MMDA에 대해 예금액 3천만원 이상은 0.2%포인트, 1억원 이상은 0.1%포인트 인상키로 하고 인상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 MMDA도 10억원 이상은 인상 폭이 0.05%포인트에 불과하지만 1억원 이상은 최고 수준인 0.25%포인트에 달한다.

정기예금인 1년 만기 '큰만족실세예금' 금리는 0.1%포인트 인상된다. 지난 10일 금리를 인상한 신한은행은 개인과 법인 MMDA에 대해 영업점장 최고 승인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0.25%포인트를 인상했다. 정기예금인 탑스(Tops)회전예금도 1개월은 0.25%포인트, 3개월과 6개월은 0.15%씩 금리를 높였다.

국민은행은 16일부터 MMDA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는 대신 정기예금 금리는 MMDA보다 낮은 0.1%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만기가 길고 금액이 많은 예금에 대해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증권사의 CMA 인기가 높아지면서 은행권 대응 상품인 MMDA에 더욱 주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보험사기 기승

## 상반기 1만 5,736건·1,132억 적발

보험사기가 나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계획적인 보험사기는 물론 직장인이 저지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1만5천736건, 적발금액은 1천132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각각 29.1%, 16.1%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기유형(적발 건수 기준)을 보면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가 30.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 후 피해과장(16.7%), 허위 보험사고(15.9%) 등의 순이었다.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사전에 계획한 보험사기의 비중은 25.6%로 4.7%포인트 커졌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손해보험이 971억원, 생명보험이 161억원으로 이중 사전에 보험금 지급을 방지했거나 회수한 금액은 961억원이었다.

/연합뉴스

# 9월이후 분양공고 하면 예외없이 '가점제' 적용

## 건교부, 규칙 변경

이미 분양승인신청을 했거나 8월중에 하더라도 9월 이후에 분양공고를 할 경우에는 모두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는 더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를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양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주택공급규칙을 변경해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이미 분양승인신청을 한 주택은 물론 8월31일 이전에 분양신청을 하는 주택도 8월 마지막날까지 분양공고를 하지 않으면 가점제 적용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는 용인 상현지구의 현대힐스테이트 860가구 등도 분양가 줄다리기가 계속돼 9월이후에 분양공고를 할 경우에는 청약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건교부가 공급규칙을 변경한 것은 9월 이후에 일부 주택은 기존 제도로 입주자를 뽑고 또 일부는 변경된 제도가 적용될 경우 청약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최근 분양승인신청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업체의 분양가 줄다리기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급규칙을 변경하지 않으면 9월이후에도 기존 제도로 입주자를 뽑는 주택이 있어 청약대기자들이 어떤 제도의 적용을 받는 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 은행의 청약시스템이 2가지 제도를 병행해서 처리할 수 없는 전산상의 문제도 고려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아티스트가 리폼한 옷으로 멋내기

12일 서울 롯데백화점 영플라자 쌈지아트마켓에서 팝아티스트 더 잭(The Jack)이 고객들의 옷이나 신발에 직접 그림을 그려주는 리폼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기관 대출 쏠림현상 심화

## 상반기 75%가 수도권에 몰려

상반기 금융기관 대출 증가액의 75%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위축되면서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한 점을 감안할 때 중기 대출이 수도권 쏠림현상을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지역별 금융기관 대출금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예금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생명보험사·증권금융 제외)을 합친 대출금 잔액은 982조1천606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65조4천480억원(7.1%) 증가했다. 대출금 증가액은 작년 상반기 48조7천560억원, 작년 하반기 63조4천546억원에 이어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대출금 잔액은 627조8천480억원으로 올 들어 49조69억원(8.5%)가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의 대출금 잔액은 354조3천126억원으로 16조4천411억원(4.9%) 늘어나는데 그쳤다.

상반기 대출 증가액의 75%가 수도권에 공급된 것으로 전체 증가액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말 56.6%에서 2005년말 67.8%, 작년말 70%에 이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대출잔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말 63%에서 6월 말 64%로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지역이 각각 8.6%와 8.2%의 대출증가율을 보였고 영남지역 5.8%, 충청지역 4.8%, 호남지역 3.2% 순이었다.

/연합뉴스

# '상용' 160만명 늘고 '일용' 70만명 줄어

## 통계청, 최근 5년 근로자 고용구조 조사

상용근로자 수가 최근 5년간 160만명 이상 늘어난 반면, 일용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수는 같은 기간 70만명 이상 감소하는 등 국내 고용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상용근로자수는 853만3천명으로 5년전인 2002년 같은 분기의 685만5천명에 비해 167만8천명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계상 안정적인 고용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상용근로자 수는 2·4분기 기준으로 2003년 725만명, 2004년 758만6천명, 2005년 793만6천명, 작년 815만7천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 수도 이 기간 소폭 늘어 2002년 2·4분기 490만8천명에서 올해 같은 분기 523만7천명으로 5년만에 32만9천명 증가했다.

이에 비해 고용주나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비임금근로자는 올해 2·4분기가 763만7천명으로 5년전에 비해 53만1천명 감소했다.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수도 지난 2.4분기가 229만1천명을 기록해 5년전 249만2천명과 비교할 때 20만1천명이 줄었다.

/연합뉴스

# '실적공사비 단가' 총 공종 58%로 확대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 공종이 총 공종의 58%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총 1천857개 공종중 1천개(54%)에만 적용해온 실적공사비 단가를 1천69개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계약한 단가를 평균한 것으로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예상입찰가를 책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실적공사비 단가가 없는 나머지 공종은 '표준품셈 방식'에 따라 투입인원, 1일 인건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해 별도로 산정된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245회)

| 당첨번호 | | | | | | 2등보너스 숫자 | 당첨자 수 |
|---|---|---|---|---|---|---|---|
| 09 | 11 | 27 | 31 | 32 | 38 | 22 | |
| 등 위 | | | | | | 당첨금(원) | |
| 1 | 6개 숫자 일치 | | | | | 1,382,583,129 | 7 |
| 2 |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 | | | | 46,086,105 | 35 |
| 3 | 5개 숫자 일치 | | | | | 1,477,119 | 1,092 |
| 4 | 4개 숫자 일치 | | | | | 56,159 | 57,445 |
| 5 | 3개 숫자 일치 | | | | | 5,000 | 959,435 |

**팝콘복권** (제68회)

| 등위 | 당첨금(원) | 당첨번호 | |
|---|---|---|---|
| 1 | 10억 | 6조 | 395300 |
| 2 | 5억 | 6조 | 395299 |
| | | 6조 | 395301 |
| 3 | 1천만 |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 |
| 4 | 1백만 | 각조 | 44750 |
| 5 | 1만 | 각조 | 064 |
| 6 | 2천 | 각조 | 49 |
| | | 각조 | 54 |
| 7 | 1천 | 각조 | 1 |
| | | 각조 | 9 |